칼 럼

장 기 채 주 필

송년회 그리고 술 이야기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보다는 /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 고마워 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 한 해 동안 받은 /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 사랑하는 이들에게 / 띄우고 싶은 12월 〈중략〉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 새 달력을 준비하며 / 조용히 말하렵니다 / 가라, 옛날이여, / 오라, 새날이여, /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 고마운 시간들이여… 여승 이해인이 쓴 '12월의 시'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어느새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술술 빠져 나가듯 365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다.

바야흐로 연말이다. 송년회의 시즌이다. 같이 보낸 한해를 서로에게 감사하는 또 새로운 한해에도 잘 지내보자는 의미의 송년회이지만 빼곡하게 적혀가는 달력 위 송년회 약속들을 보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언제나 연말이면 송년회 등 각종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한 해를 편안하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자리들이지만 정작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

매일 저녁 술자리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루에 서내 개의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얼굴만 잠깐씩 비추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처럼 편하게 얘기해 보자.

소주 한 잔 들이키면 저절로 '캬~'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술자리 추임새다. 혹자는 말하기를 술은 인간에게 이롭지 않다고 했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술을 마심으로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그 속에 맑음이 있는 것이고 몸이 피곤해지는 것은 그 속에 굳건함이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소주가 그런 추임새는 기쁨이 되었고 슬픔은 슬픔이 되어 술자리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소주에서 '캬~' 소리가 사라졌다. 소주가 어느 사이 묽어졌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20도 이하로 떨어진지 꽤 오래 되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혀를 가장 많이 꼬부라지게 만들었던 최대소주 업체가 맛과 모양을 완전히 바꾼 소주를 선보였다.

이상한 것은 도수와 맛이 현저하게 다른 술인데도 업자들은 소주라도 내놓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분명 '소주는 알코올 성분이 20~35%'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20도 이하로 내렸으면서도 소주라고 이름 하여 팔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네 주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소주는 하루에 적게 잡아도 수백만 명이 마시는 국민주(酒)임에 틀림없다. 그런 국민주가 맛과 도수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주가 묽어지니 여러 문제들이 파생된다. 우선 평소대로 취기가 오르려면 술을 훨씬 더 많이 마셔야 한다.

도수는 내리고도 술값을 올렸으니, 도수낮춤은 사실상 술값을 이중으로 올린 셈이다. 또 장시간 마셔야 하니 안주 값이 더 들어간다. 술이 '만만'하니 여성음주인구가 늘어난다. 소주의 도수 낮춤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우선 술값인상이나 다를 바 아니다. 안주 값 인상, 밤늦은 교통비, 여성들의 술값 추가지출 등은 직접 손실이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은 얼마나 험난했던가. 어디 눈물 마를 날이 있었는가. 우리의 눈물과 탄식, 그래서 나온 노래와 탄식은 소주잔에 떨어졌다. 우리 젊은 날의 추억은 30도와 25도의 소주 속에 녹아있다.

올 겨울이 지나면 분명 봄이 오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공허할 뿐이다.

어려운 시절 속에 얼어있는 우리네 마음은 언제 녹을 수 있을까. 끝이 보이는 속 시원한 소식은 요원하다. 이 땅의 정치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는 일이 팍팍하니 옛날 그 소주 맛이 간절하다. 올해 송년회는 '캬~' 소리 내며 마시고 싶다. 그것이 소주의 향수 아니겠는가.

社 說

기대감 고조되는 J프로젝트

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투자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니 기대가 크다.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남의 대형 프로젝트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구성지구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난 2010년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에 본격 착수했다.

2095만9540㎡(634만평) 규모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는 선도사업인 2500세대 규모의 솔카운티(레저주택)와 골프장, 비롯해 테마파크,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등을 구상했는데 에너지 과잉 소비 및 기후변화, 대도시의 교통 및 상수도 등 산업화가 가져온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7개의 골프장을 2개소로 축소하고 미래 신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교육기관 유치, 호텔, 콘도 등 다양한 규모의 숙박시설과 골프, 승마, 마리나 등 레저 관련시설의 설치,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헬스케어 관광서비스 등 국제적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탄소제로 및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시설이 융·복합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 사업시행자측은 이같은 컨셉을 토대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주)은 이달 구성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영암 호텔현대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측이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더이상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119신고! 도로명 주소로 하세요

2006년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표기가 전면 시행되었다.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기존의 주소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및 산업화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 되거나, 하나의 지번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모호한 점 등으로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일례로, 1번 옆 건물은 2번이 되어야 하나 50번이 될 수도, 100번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구급 등 다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주소만으로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을 찾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표시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로의 시작점에서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로 10M 간격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해당 번호를 뇌두어 건물이 신축할 경우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 표시보다 기존의 주소체계에 적응되어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내 집(건물)과 나(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는 꼭 알고 기억하여야 하겠다.

김용진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정대장

겨울철 심근경색 주의해야

겨울철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짐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혈압이 13mmHg 가량 상승한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게 되면 혈액이 지나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져 심할 경우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심근경색을 일으켜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이유로 국내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심장질환 중에서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년 뿐만 아니라 30대, 20대에서까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장질환은 전조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흉통, 호흡곤란, 피로함 등의 전조증상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응급처치다. 초기 10분이 생사를 결정하기에,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하여야 한다. 그 후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박영남 /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晝	낮	주
眠	잘	면
夕	저녁	석
寐	잘	매

晝眠夕寐

▷뜻 : 낮에 낮잠 자고 밤에 일찍 자니 한가한 사람의 일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 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